

# 국내 석유가격 및 유가형성의 특징

본 보고서는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의 내용중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정 우 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 석유가격의 특징

대외 개방이 본격화되면 정제부문은 지금과 같이 국내 정유사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에 새로이 진입한 외자계 정유사 및 수입 석유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석유는 품질수준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곧, 정유사의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다. 석유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원료비와 해상수송비 및 보험료 등 원유도입관련 비용과 국내도입비용 및 정제비이며 세금과 부과금 및 비축비용 등 정부부문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중 정부부문의 비용은 국내 생산제품이나 수입제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은 원료비 및 수송비, 정제비 등이 될 것이다. 이외 직접비용이 아닌 금융비 및 영업비, 환차손익 등은 역시 석유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채율이 높은 곳은 금융비가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석유산업은 또한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초기단계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고정비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특성 때문에 설비가동률이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 석유는 연산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휘발유와 등·경유 등 경질제품과 수요가 낮은 중유 등 중질제품의 생산비율도 전체 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특히 중유탈황설비율이 낮아 환경기준이 높을 때는 대부분의 생산중유가 덤핑으로 수출되는 경향이 많다.

원유구입 비용은 대부분의 나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수입국일 경우 해상 수송거리에 따라 도입비용이 차이를 보이니 이것은 지리여건상의 제약이기 때문에 같은 국가내에서의 경쟁력 평가에서는 주요한 척도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상하류부문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 경영전략상 시장확보나 상류부문에서의 수익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면 정제부문의 마진을 크게 낮추거나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다.

## 가격자유화이후 석유가격 결정의 특징

1997년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석유가격은 그 이전의 정부고시제나 연동제 방식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5대 정유사가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점기업들은 상호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점기업들끼리의 경쟁은 서로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석유기업들은 먼저 공동이윤을 극대화시킨후 자기몫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물론 공개적인 협조나 가격담합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독점금지법의 주된 단속대상이다. 석유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가격을 조정시킨다.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과점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sup> 첫째는 가격선도기업(price

1) 가격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전경련, 1987.

leadership) 방법을 들 수 있다. 가격선도는 과점기업들 간의 규모나 생산비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때 규모가 큰 기업이나 생산조건이 유리한 기업이 과점시장 가격을 선도하고 다른 기업은 이 가격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한 선도기업은 추종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시장내 머물 수 있는 가격을 정한다. 만약 선도기업이 약탈가격(predatory price)을 책정하여 추종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한다면 자기는 독점기업으로서 독점금지법의 제재를 받게되기 때문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는 총합비용가격결정(full-cost pricing)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과점시장의 기업들이 비슷한 생산비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에 적정수준의 이윤마진을 더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가격을 정한다면 정상이윤을 포함한 총합비용 수준 이하로 가격을 내리는 예는 최소화된다. 총합비용 결정방식은 적절한 가격수준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점시장의 가격조정을 도와주고 있다.

셋째는 초점가격결정(focal-point pricing) 방법이다. 이것은 과점기업끼리 미묘한 의견일치에 의해 과점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과점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과점기업끼리의 이심전심에 의해 합일점을 만나게 되어 가격을 결정한다. 초점가격결정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많은 과점시장의 가격결정을 해명해 주고 있다. 과점기업들끼리 어떤 초점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각자가 묵시적으로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기업이 초점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격을 조금 낮게 정한다면 곧 다른 기업들에 의해 보복을 받게되고 결국 과점시장의 모든 기업들에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과점기업들은 잘 알고 있다. 과점기업들은 상호 의견교환없이도 어떤 초점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정하게 된다.

상기 세가지 과점시장하의 가격결정방법을 볼 때 유가자유화이후 국내 정유사들은 초점가격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격자유화이전에 오

랫동안 정부규제가격 결정방식에 익숙해 있던 정유사들은 암묵적으로라도 과거의 규제가격을 초점가격으로 쉽게 설정해 버릴 수 있다. 과거 석유의 규제가격이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해서 정해지는 이른바 총합비용가격결정 방식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유가자유화이후에도 초점가격은 여전히 총합비용가격결정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유통회사들이나 소비자들은 가격자유화이후에도 정유사들의 석유가격 결정방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가격규제가 철폐되었다 해도 행정지도나 여타 제도적 권한에 의해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협조적 과점가격을 더욱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같은 가격지도는 과점시장의 묵시적 담합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내 석유시장은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진 1997년 초부터 초과공급 상황에 있었고 1998년 이른바 IMF 경제상황하에서는 초과공급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같은 초과공급하에서는 정유사들의 높은 경쟁이 예상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점시장이 유지된 것은 정유사들이 공통적으로 금융위기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로 경쟁여력이 낮아 경쟁을 피한 면도 있었으나 정부의 가격지도도 과점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 개방은 이러한 초점가격의 틀을 깰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외국의 정유사가 진입했을 때는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유지되는 초점가격에 익숙하지 못하고 둘째는 수입사들의 가격결정 행태는 초점가격보다는 국제시장 가격변동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진입 외국 정유사들의 경영전략 여하에 따라서는 경쟁보다는 국내 정유사와의 암묵적 협조와 과점적 시장을 더 선호하고 수입사들의 수입물량이 소규모이거나 초점가격이 수입사들의 수입을 저지할 정도로 낮아진다면 초점가격의 틀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국내 정유사의 과점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과점가격과 수입가격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 것이며 국내 가격이 수입사의 신규진입을 저지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가이다. ☯